

소설문학에서 묘사의 형상적요구

김 정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김정일선집》 제16권 증보판 315페이지)

묘사란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을 구체적이며 감성적인 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을 말한다.

소설문학은 묘사를 기본수단으로 생활을 반영하는 묘사의 문학이다.

소설문학은 예술적묘사라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생활의 본질에로 깊이 침투하며 생활이 안고있는 모든 의미와 색깔, 음향, 향기 등을 남김없이 드러낸다.

생활에 대한 묘사를 떠나서 소설문학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생각할수 없다.

소설에서 묘사는 인간과 생활을 회화적인 문장을 통하여 그림으로써 독자들이 생동한 표상을 가지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육감적으로 느끼게 한다.

소설에서 묘사가 문학예술의 다른 형상수단들에 비해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유롭게 그린다고 하여 형상원리를 무시해도 되는것은 아니다.

묘사는 자기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고있다.

소설문학에서 묘사의 형상적요구는 무엇보다도 묘사에 반영된 생활이 인물의 성격을 인상깊게 보여주는데 복종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산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 주체문학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예술작품에 그려지는 생활환경은 인물의 성격형상에 복종될 때에만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생활세부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력사적조건과 환경 그리고 자연지리적조건과 세태풍

속적인 풍물, 생활도구와 장치물에 이르기까지 생활환경전반이 인간을 그리기 위한 요구에 복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작품에 그려질 필요가 없다.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떠난다면 구태여 생활환경을 그려야 할 요구가 제기되지 않는다.

생활을 그리기 위해서 인간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리기 위해 생활을 그리는것이다. 생활환경은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만아니라 인간성격을 인상깊게 보여주는데 복종되고 이바지하여야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산 인간을 그리는것이 인간성격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리는 것이기때문이다.

생활을 화폭적으로 제시하여 인간의 성격을 보여주는것이 묘사이다.

인물의 외형을 그리든, 행동을 그리든, 극적정황을 그리든 할것없이 그 인물의 개성적인 성격이 인상깊게 안겨오지 않는다면 묘사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연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연을 감수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체험세계,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변혁하는 인물들의 활동과 투쟁을 도외시하고 자연자체를 그리는데 그치게 되면 아무리 눈으로 보듯이 생동하게 그렸다고 하여도 묘사로서의 의의가 없다.

묘사는 오직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개성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인상깊게 보여주었을 때에만 가치를 가진다.

소설문학에서 묘사의 형상적요구는 다음으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이다.

이것은 묘사의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이다.

묘사는 본질에 있어서 세부묘사이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린다는것은 이러저

러한 생활사건과 사실을 통채로 제시하거나
라렬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단면
들을 파고들어 깊이있고 섬세하게 그려낸다는
것을 말한다.

묘사는 우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하여야
한다.

현실은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언
제나 구체적이며 개별적인것을 통하여 표
현된다.

흔히 하나의 생활화폭을 창조하자면 인물
들의 초상과 행동, 그들의 심리와 감정, 그
들을 둘러싼 자연과 정물 등을 종합적으로
그려야 한다. 여기서 어느것이나 통채로 제
시할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단면화하여 섬세
하게 그려야 한다.

묘사는 또한 립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묘사를 립체적으로 한다는것은 대상의 전
모를 리해할수 있게 상하좌우로 그린다는것
을 의미한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린다는것은 생활의
외형적모습만을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그린
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상 생활단면이라고 하는것은 눈에 뜨
이는 평면적인 생활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
다. 마치도 지층의 단면도와 같이 생활속에
담겨진 인간관계, 사람들의 사상감정의 호
상작용과 교감세계, 생활이 이루어지게 한
객관적인 사회적조건 등이 반영된것 다시말
하여 세분화된 생활이 립체적으로 반영된것
이 바로 생활단면이다.

묘사를 립체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상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면서 특징적이고
인상적인것을 골라잡고 력점을 찍어 그림으
로써 전반에 대한 표상을 가지도록 하는것
이다.

립체적인 묘사는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뿐아니라 전모를 한점 또는 몇개의 점
에 집약시키고 집중시킬줄 아는 능력이 있
을 때에만 가능하다.

실례로 창가에 아름다운 꽃송이가 피고

장판이 거울같은 방안의 전경을 묘사한다면
그것들을 따로따로 묘사할것이 아니라 장판
위에 비낀 꽃송이의 음영만을 묘사하면 될
것이다.

묘사는 또한 감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묘사를 감각적으로 한다는것은 대상의 모
양을 눈으로 보고 그 음향을 귀로 들으며 그
냄새와 맛을 코와 혀로 느끼며 그 차고 뜨거
움을 피부로 감촉하는것처럼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감각기관으로 직접 느
끼는것처럼 대상을 그린다는것이다.

감각적인 묘사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묘
사자나 등장인물이 감각하는 과정과 그 결
과를 표현할 때 이루어진다. 감각적인 묘사
는 생활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보여
주는데 의의가 있다.

묘사는 또한 분석적으로 하여야 한다.

분석적으로 묘사한다는것은 대상을 객관
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데 그치는것이 아니
라 자기의 사상미학적리상에 비추어 대상을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그로부터 얻어지는
생활의 의미와 정서적의의를 천명하여 묘사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분석적인 묘사에는 해당 현실에 대한 묘
사자의 립장과 태도, 견해가 주어진다. 다시
말하여 작품에 그려지는 사물현상에 대한
묘사자의 심오한 사색과 주장이 묘사의 회
화성과 결합된다.

생활의 진실을 보여주는 세부형상창조에
서 생활세부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드
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분석하지 않고
서는 그것이 생활을 세부적으로 그리는 세
부적인 묘사로 될수 없으며 생활을 깊이있
게 분석함으로써만 그 생활의 본질과 내용
을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다.

묘사대상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하
는것은 생활의 진실을 보여주는 묘사의 필
수적요구이며 묘사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된다.

생활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는 생활이 담고있는 의미와 색깔을 깊이있게 강조함으로써 생활을 그만큼 폭넓고 심오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한다.

행랑살이를 그만둔 어머니가 첫돌이 갓 지난 아들을 누데기에 싸서 발머리 나무그늘에 눕혀놓고 김을 매는 해방전의 생활을 묘사해보자.

《처음에는 발을 버둥거려보았으나 그것도 성차지 않아 뒤치락거리다가 나중에는 데굴데굴 구울러내려가 끌어안고 입술에 대는것은 어머니 젖가슴이 아니라 발고랑이었다.

자연에 속히운 아기는 눈물, 코물에 짓이겨진 흙을 쥐어먹었다.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혔다가도 그 자그마한 몸으로 벌렁벌렁기기 시작하였다. 온돌방이나 널마루가 아니라 돌발고랑에 야릿야릿한 살갓이 벗겨지고 무릎에 멍이 들면서도 기여야만 자라고 기여야만 사는것이였다.》

여기에는 첫 아기를 낳은 연약한 한 녀인과 어린 생명에게 것처럼 무서운 고통과 슬픔을 강요하던 당대 현실에 대한 깊은 분석이 있으며 예술적일반화가 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닌 발고랑에 여리고 어린 살갓을 벗기워야 하는 첫돌이 갓 지난 어린 아기의 가공한 정상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통하여 해방전 한때기 땅도 없어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 인민의 생활을 보여주고있으며 이 불행을 강요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죄악상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이상과 같이 묘사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 다시말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립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리는것으로 하여 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인간성격을 보다 인상깊게 보여줄수 있는것이다.

소설문학에서 묘사의 형상적요구는 다음으로 개성적인 묘사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묘사자체가 소설창작수단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묘사과정은 새로운 생활화폭에 대한 창조과정이다.

묘사에서 개성은 묘사된 인간성격의 개성이며 묘사에 반영된 묘사자의 창작적개성이다.

우선 인물성격의 개성적인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

대상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립체적으로 투시하여 그 인물에게 고유한 특징적인 점들을 옹게 포착하고 그려야 한다.

그러자면 대상인물의 내면세계를 특징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그려야 하며 대상인물의 기질적인 측면을 최대한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인물의 내면세계는 그의 사상과 의지, 감정이 하나로 어울린 정신적풍모의 통일체를 의미한다. 내면세계에서 핵을 이루는 사상의식과 그 표현형태들인 감정과 정서, 지향과 의지, 신념 등 다양한 심리적현상들은 인물성격의 개성적인 측면을 보여줄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인물의 세계관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돌리고 기질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없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 세계관이 서로 다른 기질에 굴절되어 나타나면 성격이 서로 구별된다.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성격이 바로 개성적인 성격인것이다.

개성창조에서 기질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선천적인 기질만을 내세우거나 우리 민족의 특성과 미감에 맞지 않는 기형적인 기질을 들고나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인물의 직업적개성에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인간개성에는 직업적개성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가 되자면 수없이 다양한 직업적개성에 대한 넓은 리해를 가져야

하며 그것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묘사자는 자기가 그리는 인물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를 명심하고 그 직업특유의 개성을 살리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묘사자의 창작적개성을 뚜렷이 살려야 한다.

묘사자의 창작적개성은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 개성적발견으로 되는 참신한 생활세부를 찾아내는것이며 개성적으로 탐구해낸 생활세부들을 역시 개성적으로 표현할수 있는 형상수법들을 활용하는데서 나타난다.

이미 다른 창작가에 의하여 쓰여진 세부,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세부가 아니라 남다른 관찰력을 가지고 새롭게 찾아낸 예술적 세부와 자기나름의 고유한 묘사기법, 독특한 문체로 형상된 묘사만이 개성적인 묘사라고 말할수 있다.

묘사에서 나서는 이런 형상적요구에 맞게 인간과 생활을 성격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개성적으로 그려나갈 때 인간과 생활을 보다 진실하게,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소설작품창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묘사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있다.